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 합의… 한국 경제 재도약 시동

오늘 투자협약 체결 예정 … 현대차 합작공장 광주에 설립
사회적 통합 통한 일자리 창출 타지역·산업 파급효과 클 듯

민중성기 광주가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새로운 실험대에 섰다. ‘고임금 정규직’ 중심의 제조업 구조를 혁신, 임금을 낮춰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 및 기반시설을 분담하고, 노사민정의 틀 안에서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의 운영주체를 맡는 시도 역시 세계 최초다. <관련기사 3면>
30일 광주 노사민정협의회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합의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협의회 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의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운중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백석 광주경실련 대표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오후 5시에 시작된 회의는 50여분만에 끝이 났다.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졌다. 글로벌 자동차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의 광주 투자로 인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타 지역과 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협의회는 협상의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협상서 제1조 2항과 관련해서는 단서를 붙여 지역 노동계의 반대를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협정서 제1조 2항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접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 시까지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는 신설법인의 임금 협상을 사실상 차량 생산 35만대가 넘는 시점, 즉 연 7만대 생산일 경우 5년 그리고 10만대 생산일 경우 3년 6개월간 유예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지역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2급 상당의 사회연대일자리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등 협상팀을 재정비해 이 같은 중재안을 만들고 현대차와 지역노동계를 오가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현대차와의 협상안이 만들어지자 지역노동계를 직접 설득했으며, 30일 오전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지역노동계의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14일 광주는 노사상생도시를 선언했으며, 이는 노사의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정의로운 도시인 광주가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 도시의 첫걸음이며, 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해온 만큼 위원들이 소명의식과 역사 의식을 갖고 심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30일 광주시 북구 임동 한국노총 광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본부 대의원 총회를 찾은 이용섭 광주시장, 운중해 한국노총 지부장, 송갑석 의원 등이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김경수 법정 구속

법원 “드루킹과 공모관계 인정” 징역 2년 선고

경남지사 당선 무효 위기에 “최악의 판결”… 야 “당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수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만큼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선고 결과에 얼굴이 사뭇게 진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최악의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반면 야당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매우 유감이다. 여러 차례 특검에 거를 제한한 저질 정치브로커는 줄곧 특검을 희롱했다”며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운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김 지사의 대선 댓글 조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 2월 4일 판문점서 실무협상

2차 정상회담 의제 조율

미국과 북한의 고위 관리가 다음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2월 초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달 4일께 판문점에서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만날 것 같다고 전했다. 비건 특별대표의 새 카운터

파트로 낙점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 측 실무협상 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사는 지난 1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비건 특별대표와 ‘상견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남겨두고 열리는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구체적인 회담 날짜와 장소, 의전 관련 사항은 물론 북한 비핵화와 미국 쪽 상응 조치의 이행계획 등의 의제도 상당 부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판문점 방문에 앞서 31일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스탠퍼드 대학을 들러 대북 전문가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강연을 할 계획이다. 이 대학 윌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센터에는 그동안 북미 막후 조율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작년 말 은퇴한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이 방문학자로 있다.
폴리티코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유력 후보지로 베트남을 띄우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까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 외교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베트남 당과 하노이가 잠재적인 회담 장소로 거론

되는 가운데 만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베트남을 공식 국빈방문하기로 결정한다면 수도인 하노이가 유력할 것으로 이 매체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 편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 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광주, 대한민국! **미래혁신**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본격 추진”

미래혁신 성장산업인 인공지능(AI) 중심의 전략사업 투자로 선제적 시장 확보와 미래 먹거리 기반 마련

광주!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선도도시가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